

2011년 낙농정책 추진계획

이연섭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1. 낙농정책 추진계획

가. 낙농정책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 : 생산 감축 → 수급 안정

정부는 2011년의 낙농정책 방향을 수급안정에 중점을 두고 원유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업체의 원료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생산감축에 목적을 두고 추진해 온 제도를 재검토 해 나간다. 우선적으로 현재의 낙농가들이 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영세농의 규모화를 적절히 지원해 나갈 것이다. 장기적으로 낙농선진국들과의 FTA 체제하에서도 국내 원유 생산량 목표를 최소한 200만 톤 이상으로 설정하여 낙농산업기반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원유 증산을 위해 낙농진흥회 농가의 쿼터량(정상가격을 주는 물량=버퍼량)을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5% 부여하고, 쿼터 인수도시 쿼터량의 20%씩 회수하던 제도 역시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 낙농가의 숙원이었던 쿼터산정기간을 현행 15일에서 연간으로 전환하여 '연간총량쿼터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다만, 연간총량쿼터제를 시행할 경우 성수기의 원유생산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개인별 계절진폭이 '09년도 계절진폭(10.4%)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토록 하였다. 버퍼량 부여와 함께 연간총량쿼터제 시행으로 낙농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원유증산에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분유의 수급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접근물량을 1/4분기 중에 조기 발주하고, 상반기 중 탈지·전지분유를 할당관세(관세 0%)로 9천톤(탈지 8천, 전지 1천)을 도입키로 하였다. 하반기에도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적절히

탈지·전지분유 등을 할당관세로 도입하여 원유생산 감소에 적절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유제품 시장접근물량 현황(단위: 톤)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유당	유장분말	버터
시장접근물량	1,034	573	130	19,400(증량포함)	14,733	420

구제역으로 인해 대량 손실된 젖소 사육두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의 젖소 수입 여부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제역으로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은 낙농가들의 재기를 도와야 하며, 단기적으로 원유를 증산하기 위해서는 쿼터 증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젖소를 수입하는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다. 젖소 능력이 뛰어난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 광우병 등 질병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되고 있어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반추동물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더구나, 뉴질랜드산 젖소의 경우 국내산보다 젖소 산유능력이 떨어지고 호주에는 국내 법정 전염병인 요네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도입시 사전 검사를 통해 질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의 선별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할당관세(관세 0%)로 도입될 수 있는 종우(種牛) 시장접근물량을 현행대로 1,067두로 결정하였으며, 하반기에 추가도입이 필요할 경우 수요조사 등을 통해 시장접근물량 증량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별 젖소(홀스타인) 능력 비교표

구분	유량(kg)	품종	기준년도	수입위생조건 상 수입가능여부
한국	9,563	홀스타인	2010	-
미국	10,403	홀스타인	2009	불가(광우병 등)
캐나다	9,793	홀스타인	2009	불가(광우병 등)
호주	7,280	홀스타인	2008	가능
뉴질랜드	5,549	프레지안	2008	가능(규격미설정)
네덜란드	8,720	홀스타인	2007	불가(광우병 등)

나. 낙농종합대책 추진

정부는 선진 낙농국들과의 FTA에 대비하고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10년 3월 낙농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근간으로 새해에는 당장 실

현 가능한 것부터 내실 있게 낙농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전국쿼터제 등 낙농종합대책의 취지를 낙농진흥법에 최대한 반영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중앙낙농기구로 “(가칭)한국낙농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과 전국 쿼터제 시행근거 등을 담을 계획이다. 한국낙농위원회는 앞으로 장단기 수급 전망을 정밀히 분석하고 연간쿼터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적으로 쿼터를 등록, 관리해 나가게 되며, 원활한 원유수급을 위해 필요한 생산과 공급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은 국산 유제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 된다. 2011년에는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의 시행 초기이고 한·EU FTA에 대한 국회비준이 상반기에 이뤄질 경우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100억 원의 규모(연간 7만 톤)로 시작하게 되며, 2012년부터는 연간 300억 원의 규모(연간 20만 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 사업은 원유가격을 일부 보조해 주는 가격지지정책이라는 점에서 논란도 있었지만, 낙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향후 국내 원유생산기반을 확보하고 대외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준비를 위해 2011년 상반기 중 농가에 대한 가공쿼터 희망조사와 유업체의 가공원료유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공원료유에 대해서는 농가에게 생산비 보장수준으로 원유가격을 지급하게 되며, 가공쿼터를 부여받은 농가는 일정수준 가공원료유를 생산할 의무를 지게 된다.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은 한국낙농위원회에 참여하는 농가와 유업체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나, 동 위원회가 설립되기 전에는 장차 위원회 참가를 전제로 지원대상자를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소비확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소비확대 대책은 FTA 등 개방충격을 최소화 하도록 수요를 창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학교우유 급식 확대, 신규 유제품 개발, 관광체험목장·목장형유가공사업 지원, 낙농자 조금을 통한 연구개발 및 소비홍보 등을 중점 지원한다.

학교우유급식은 올바른 음용습관을 교육하여 미래의 소비자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유업체의 입장에서 학교우유급식은 일종의 투자인 셈이며 학교우유급식 점유율이 장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유업체의 신제품개발을 위해서 시설지원비로 '11년에는 '10년 대비 14억 원이 늘어난 140억 원을 융자(연리 3~4%, 3년 거치 7년 상환)지원하며, 유가공업체 운영자금도 100억 원을 융자(연리 3~4%, 2년 거치 3년 상환)지원한다. 또한 신규 유제품 개발을 위하여 학계 및 연구계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조사연구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물류비,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 박람회 참여 등을 지원한다. 수출물류비는 시유, 발효유, 탈지분유, 조제분유를 수출할 경우 물류비의 10%('10년에는 20% 지원)를 지원한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품목별 수출협의회에게 공동시장 연구비('11예산 : 4,620백만 원)를 지원한다. 또한 해외박람회 참여시에는 참여업체별로 기본 부스 장치비,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낙농체험목장을 하고자 하는 목장에 대해서는 농가당 135백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며, 목장형유가공업을 희망하는 낙농인에 대해서는 대학과 연계하여 관련교육을 지원한다. 한편, 목장형유가공업을 할 경우 판매용 원유는 직판쿼터(Direct Sale Quota)로 분리하여 관리토록 쿼터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자기가 생산한 원유 중 목장형유가공 원료로 자가 사용하는 분량만큼 직판쿼터로 구분하고 총 쿼터 중 직판쿼터를 제외한 나머지를 타 유업체나 조합에 납유하는 출하쿼터로 관리함)

- ◆ 직판쿼터(Direct sale quota) : 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쿼터량(목장형유가공사업자에 해당)
- ◆ 출하쿼터(Whole sale quota) : 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유업체 등에 판매(납유)할 수 있는 쿼터량(목장형유가공업을 하지 않는 일반 낙농가에 해당)

낙농자조금은 금년에도 농가 거출금과 1:1의 비율로 44억 원을 보조하는데 과거 자조금의 대부분을 광고비로 사용하던 것을 제한하는 대신 조사연구사업 등에 대한 사용비율을 높이도록 조정하였다.

농가의 생산성향상 지원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축사시설현대화를 위해 축사 및 착유시설 현대화 등을 위해 농가당 2억 원(보조 75백만 원, 용자 1억 25백만 원)을 지원한다. 현재는 착유시설로 오토텐덤이나 헤링본시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차 첨단자동착유시설(로봇착유기)에 대한 지원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사료비 감축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젖소 개량,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낙농단지과 젖소육성우전문목장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도시화와 규모화의 영향으로 목장이전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낙농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젖소 육성우를 전문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조사연구에 착수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젖소육성우전문목장은 과거의 실패사례를 거울삼아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으로 하여금 시범사업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 유대산정체계 개선

유대산정체계는 수많은 논의와 전문가팀에 의한 연구용역을 거쳐 개선안이 마련되었으나, 생산자측과 유업계측은 약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구제역 발생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유대산정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생산자와 유업계 양측이 공감하고 있고, 기본적인 전제조건에도 합의한 상태이며, 전문가집단에 의한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한 시안도 제시되었으므로 조만간 개선안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합의점을 찾아내는 지혜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한국 낙농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제도개선이 늦어질수록 생산자나 유업계, 소비자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사자들의 무성의를 탓할 수밖에 없다. 구제역이 종식되는 대로 이해당사자들이 상호 협력하여 한국낙농산업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제도개선 마무리를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㉞